[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56



The Jeju Institute 제주연구원 | www.jri.re.kr

Contents

※ 2026.11.11.(수) 기준(대상 기간 : 2026.11.04.~2026.11.10.)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충남도, 부여군에 도내 16번째 수소충전소 준공(2026.11.04)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워크숍(2026.11.09) ····· 1
- 충주시, 제1회 탄소중립 그린도시 페스티벌 개최(2026.11.09) ····· 2

▪ AI 분야 3

- 해군·방위사업청, 부산에 국방 AX 거점 개소·협약(2026.11.07) ····· 3
- 부산시, 내년 예산안 AI 산업에 1040억원 배정(2026.11.09) ····· 3
- 경북도, 아동 돌봄시설에 AI 로봇 127대 보급(2026.11.05) ····· 4
- 삼척시, AI 실시간 다국어 민원 소통 창구 운영(2026.11.10) ····· 4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6

▪ 탄소중립 분야 6

- 한국중부발전,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2026.11.09) ····· 6
- 인천연구원, 친환경 수송 분야 실천 방안 제시(2026.11.04) ····· 6

▪ AI 분야 7

- 한국개발연구원, AI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진단(2026.11.09) ····· 7
- 한전KPS, 발전정비 피지컬AI 로봇 실증 완료(2026.11.05) ····· 8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첫 AI 분야 사업 추진(2026.11.05) ····· 8
- 신용보증기금, 강동고 AI·디지털금융 교육 지원(2026.11.04) ····· 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전기화 현황·정책과제 조사(2026.11.08) ····· 10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탄소중립 K테크 포럼 개최(2026.11.09) ····· 10
- 남서울대, 대학 연합 탄소중립·ESG 취창업 캠프(2026.11.06) ····· 11

▪ AI 분야 12

- SK텔레콤·리벨리온, 엔비디아와 소버린 AI 협력(2026.11.09) ····· 12
- 노타, AMD 이기종 컴퓨팅 최적화 기술 검증(2026.11.09) ····· 12
- LS전선·LS마린솔루션, BIXPO 전력 기술 전시(2026.11.04) ····· 13
- 조선대, 호남권 대학 연합 AI 창업 해커톤 개최(2026.11.10) ····· 13
-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뒤 데이터센터 규제 요구(2026.11.06) ····· 14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충남도, 부여군에 도내 16번째 수소충전소 준공(2026.11.04)** - 충남도가 4일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에 조성된 수소충전소에서 이용우 부여군수, 박종찬 충남테크노파크 본부장, 이종찬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도내 16번째 수소 충전시설을 준공했으며, 부여군 수소충전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조성 - 하루 최대 충전용량은 1200kg으로 수소승용차 240대 또는 수소버스 48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이며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본격 운영할 예정이고, 충전소 운영·관리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맡아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할 계획이며, 도는 인근 지역 충전소를 이용해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지역 내 수소차 보급 확대를 기대 - 도는 2030년까지 도내 어디서나 20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67기 구축을 목표로 현재 8개 시군 15곳(29기)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부여군에 이어 6개 시군 6곳(13기)을 구축하고 있고, 올해 보령시·계룡시 충전소 개소에 이어 연내 천안시 2곳 추가 준공이 예정돼 있어 도내 수소 충전시설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워크숍(2026.11.0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목포·순천·나주 3개 권역에서 '2026 탄소중립 시민참여단(전남권)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으며, 시민참여단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시민과 함께 지역의 탄소중립 현안을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 참여 대상은 시민참여단과 사전 신청한 동반 시민 등 권역별 약 40명씩 총 120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명이며, 목포권은 10일 녹색에너지연구원, 순천권은 12일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지원센터, 나주권은 17일 나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고, 김미경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등 권역별 전문가 특강과 시민참여형 분임토론을 연계해 진행 - 분임토론에서는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지역별 탄소중립 현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분임별 주요 제안을 공유해 정책과제로 정리할 예정이며, 기존 시민참여단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1~2명과 함께 사전 신청해 참여할 수 있고,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이 일상에 뿌리내리려면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
	□ **충주시, 제1회 탄소중립 그린도시 페스티벌 개최(2026.11.09)** - 충주시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서 일상 속 친환경 생활 실천 문화를 넓히기 위한 '제1회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단법인 자원순환환경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 속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 행사장에서는 탄소중립·친환경 문화 체험부스와 탄소중립 아이디어 전시,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홍보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폐건전지나 우유팩, 투명 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 1kg을 가져오면 20리터 종량제봉투 1장으로 바꿔 주는 교환부스와 개인 텀블러·다회용기를 지참한 방문객의 먹거리 부스 무료 이용 혜택도 마련 - 세척된 플라스틱 병뚜껑을 제출하면 기념품을 주고 안 쓰는 머그컵을 가져오면 다육식물을 심어주는 참여형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이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 확산을 기대했고, 충주시는 지난 10월 선포한 탄소중립 으뜸도시 충주 비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해군·방위사업청, 부산에 국방 AX 거점 개소·협약(2026.11.07)** - 해군이 6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본원에서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해군·해병대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개소식을 열었으며,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전재수 부산시장,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부산시·해군·방위사업청은 해양·함정 분야 AI 전환 업무협약도 체결 -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데이터센터 등 해양 분야 AI 기반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해군은 개발한 기술의 군 운용 방안을 검토하며 기술을 시험할 환경을 제공하고, 방위사업청은 해양·함정 분야 AI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 구조이며, 새로 문을 연 거점의 올해 운영 예산은 38억원 규모 - 군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은 국방 데이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개발 자원을 공동 활용해 군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UNIST는 AI 기반 전장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등 올해 연구과제를 발표했으며, 부산시는 함정 관련 방산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함정 분야 AI 기술의 민간 조선·선박 MRO 활용 가능성도 기대
지자체	□ **부산시, 내년 예산안 AI 산업에 1040억원 배정(2026.11.09)** - 부산시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4202억원(7.9%) 증가한 19조3513억원 규모의 '2027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해양수도 기반 구축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오는 11일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 - AI 산업 육성에는 1040억원을 배정해 부산항의 피지컬 AI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명지녹산 엣지 AI 데이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AI 서비스를 보급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전재수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대와 지역 산업의 AI 전환이라는 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가지 방향을 강조 - 해양수도 분야에는 올해보다 30.7% 증가한 1조89억원, 혁신경제도시 분야에는 24.9% 증가한 1조32억원을 편성했으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시민 기후보험 지원, 전기자동차 9400대 구매 지원 등 재난·환경 분야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
	□ **경북도, 아동 돌봄시설에 AI 로봇 127대 보급(2026.11.05)** - 경북도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9종 127대를 도내 10개 시군 12개 시설에 보급하고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4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AI 기반 스마트 돌봄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행복재단, 경북테크노파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시군 공무원 등 60여 명과 함께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 수요를 점검 - 도는 올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10억 원을 활용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12개 시설에 로봇을 보급했으며, 로봇은 독서·코딩·정서교감 등 교육·놀이 활동을 비롯해 위험행동과 화재 감지, 시설 순찰, 공기질 관리, 생체신호 측정 등에 활용되고, 간담회에서는 김기정 경북테크노파크 실장이 사업 성과를 발표 - 김민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단장이 AI 시대 아동 돌봄과 로봇기술의 역할을 설명한 뒤 시설별 운영사례와 종사자 교육,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도는 실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 돌봄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고,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은 현장에 필요한 기술로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
	□ **삼척시, AI 실시간 다국어 민원 소통 창구 운영(2026.11.10)** - 삼척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번역 시스템을 도입해 11월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허가 비영리법인 협력 플랫폼인 '토마톡(TomaTok)'과 무상 지원받은 태블릿 PC 2대를 활용해 초기 사업비 부담 없이 구축 - 주요 기능은 약 120개국 언어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상대방의 언어로 자막을 표출하는 양방향 번역 서비스로, 민원인과 담당자가 마주 놓인 태블릿으로 각각 모국어와 한국어 자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별도 통역 인력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체류지 변경·증명서 발급 등 자주 문의하는 행정 용어와 민원 서류 안내 문구도 사전 탑재 - 화면 터치만으로 해당 언어의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는 이번 운영으로 민원 담당 직원과 이용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 외국인 주민 방문이 많은 주요 민원창구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정옥경 민원과장은 언어로 인한 불편 없는 행정서비스 이용을 기대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국중부발전,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2026.11.09)** - 한국중부발전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관한 '2026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단체부문 종합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으며, 이 상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녹색경영 실천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 - 중부발전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사업구조를 무탄소 및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제주 한림해상풍력과 산업단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고효율 친환경 발전설비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성과를 인정 - 지역사회 및 협력기업과 상생하는 녹색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경영 성과도 반영됐으며, 이영조 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임직원이 추진해 온 녹색경영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탄소 전원 확대와 친환경 신기술 도입을 지속해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언급
지방기관	□ **인천연구원, 친환경 수송 분야 실천 방안 제시(2026.11.04)** - 인천연구원이 4일 '인천 탄소중립 선도도시 친환경 수송 분야 실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걷기·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과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인천의 2045년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5만7000톤으로 같은 시점 전체 예상 배출량의 44.7%에 이를 전망 - 연구진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시민에게 인센티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를 주는 '인천형 트래블스마트'와 교통카드·민간 모빌리티 플랫폼 이용 데이터 자동 연계 방안, 에코드라이빙 점수 등을 종합해 등급과 혜택을 주는 '인천형 친환경 운전자 라벨링', 21일간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천형 넷제로 루틴'을 제시 - 인천시가 2024년 시내버스 친환경 운행 시스템으로 평균 연비 약 8.6% 향상, 연료비 약 31억원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를 토대로 일반 운전자 친환경 운전 교육 확대도 제안했으며, 제안 사업은 거버넌스 구축, 맞춤형 인센티브, 생활 캠페인, 교육 등 4개 분야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박현영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확대를 강조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AI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진단(2026.11.09)**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우리 경제가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소비는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에 그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효과가 가계로 확산되는 속도가 더디다고 분석했고, 3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3.4% 성장 -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93.7% 증가해 일평균 기준 반도체가 226.8%, 컴퓨터가 442.3% 늘었으나 가격 급등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는 설명이며, 9월 설비투자는 추석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전년 동월 대비 10.1% 늘고 반도체제조용기계가 68.9% 증가했으며, 10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도 59.1% 늘어 기계류 투자 호조 지속을 전망 - 반면 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하고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도 2분기 2.4%에서 1.1%로 둔화했으며, KDI는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높은 물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증앙기관	상승률과 그간의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동 갈등과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
	□ **한전KPS, 발전정비 피지컬AI 로봇 실증 완료(2026.11.05)** - 한전KPS가 최근 전남광주 나주시 소재 인재개발원 정비 교육장에서 '발전정비 피지컬AI 개발 타당성 검증(PoC)' 과제의 최종 시연회를 마쳤다고 5일 밝혔으며, 올해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시행한 이번 실증 시연회에서 물리적 이동·동작과 인공지능(AI) 정보 제공을 연계한 피지컬AI의 실용성을 확인 - 피지컬AI 로봇은 작업 전 안전회의(TBM) 실시를 통한 안전 사항 안내, 특정 작업자 인식 추종 이동·동행, 작업자의 이상 행동 감지·알림,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비 절차·안전 질문·답변, 3D 공간 맵핑을 통한 로봇 단독의 공구 자동 운반, 작업 종료 후 이벤트 지점별 사진과 조치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자동 작성 등 현업 업무흐름을 재현 - 한전KPS는 시연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발과제에 착수하는 한편 정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발전정비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이며, 김홍연 사장은 피지컬AI가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을 지원하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다양한 정비 요구에 대응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첫 AI 분야 사업 추진(2026.11.05)** - 한국수출입은행이 4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을 위한 1억70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사업은 EDCF가 AI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첫 사례이자 정부가 유상원조로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 구축과 AI 기술 도입을 함께 지원하는 'K-AI 패키지'의 첫 사업 - 3만5000㎡ 규모 부지에 AI와 로봇 등 기계가 결합해 현실 환경에서 인식·판단·행동하는 '피지컬 AI' 관련 인력을 양성할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AI·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로보틱스·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IoT) 등 4개 학과와 AI 실험실, AI 연산장치, 초고속 메모리 등을 갖춘 고성능 AI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국내 AI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활용 - 탄자니아 정부는 교육기관과 연계해 인근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수은은 이번 사업을 국내 AI·디지털 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진출과 연계할 방침이고, 이동훈 선임부행장은 이번 사업을 '한국형 AI 기술'이 아프리카에 뿌리내리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언급
	□ **신용보증기금, 강동고 AI·디지털금융 교육 지원(2026.11.04)** -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3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강동고등학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5개 기관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으며, 대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금융 등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신보 직원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 - 이번 협약은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강동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제도로, 협약기관들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학생 진로 탐색과 체험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 - 신보는 금융과 창업 분야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AI·디지털금융 특화 수업을 마련하고 현직 직원이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코티칭(Co-teaching)'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며, 강승준 이사장은 학생들이 금융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을 강조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전기화 현황 · 정책과제 조사(2026.11.08)** -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전기화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31.9%에 그쳤고 추진 예정 기업은 5.2%,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으며, 초기 설비 투자와 전력 조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걸림돌로 지목 - 전기화는 화석연료를 쓰는 설비와 공정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도 녹색전환(K-GX)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나, 추진 기업 절반 이상이 높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정책 불확실성 등에 부담을 느꼈으며, 필요 정책은 전력 조달 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66.1%), 요금·시장 제도 개선(61.9%), 에너지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45.0%) 순 - 국내 기업의 91.8%는 내년 시행 예정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전력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49.8%는 요금제 도입 시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으며,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 기금 활용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예측 가능한 요금 체계 마련을 촉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탄소중립 K테크 포럼 개최(2026.11.0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2026 하반기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을 개최했으며, '탈탄소 전기국가 시대, 무탄소 전력 확보와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기업 대응 실태와 정책 수요, 무탄소 전력 확보, 투자·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고 포럼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 - 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기업 914개사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무탄소 전력 수요 전망과 확보 수준 간 격차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박은덕 한국에너지학회장은 AI와 산업 전기화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 확대와 전력망 확충, 계통 유연성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김성환 한국산업은행 부장은 재정·세제 지원과 전환 금융의 단계적 안착, 정책금융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남정호 H2리서치 대표는 대규모 실증과 표준·인증 체계 구축을 제시했으며, 구자균 회장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무탄소 전력 공급 기반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
대학교	□ **남서울대, 대학 연합 탄소중립·ESG 취창업 캠프(2026.11.06)** - 남서울대가 5~6일 교내 지식정보관에서 대전·충청권 대학과 연합해 '2026 남서울대학교 & 대전·충청권 대학 연합 탄소중립·ESG 취창업 캠프'를 열었으며, 대학생들의 탄소중립·ESG 분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는 남서울대 앵커사업단이 추진하는 충남 앵커사업 4-3과제 '탄소중립 활성화 지원'의 일환 - 캠프에는 남서울대와 국립공주대, 순천향대, 세한대, 배재대 등 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환경·사회적 문제를 창업 기회로 바꾸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으며, 첫날 탄소중립·ESG 산업 이해와 창업 기회 탐색, 스타트업 실습 교육,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과 전문가 멘토링이 진행되고 둘째 날 7개 팀이 사업계획서 발표·평가에 참여 - 공연 후 버려지는 콘페티(꽃가루 장식물)를 회수해 스노우볼 형태 기념품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모델을 제안한 남서울대 '남대기운'팀이 271점으로 대상, 남서울대·배재대 학생으로 꾸려진 '클레임'팀이 269점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이주열 앵커사업단장은 대학 간 공동교육과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SK텔레콤 · 리벨리온, 엔비디아와 소버린 AI 협력(2026.11.09)** - SK텔레콤과 리벨리온이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데이'에서 엔비디아와 한국형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연동한 통합 컴퓨팅 시스템으로 추론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구상으로, 과기정통부와 엔비디아가 논의해 온 NV링크 퓨전 기반 국산 NPU 연계 사업의 일환 - 3사는 리벨리온이 개발 중인 차세대 NPU 'R200'을 NV링크 퓨전으로 연결하고 서버 랙 표준 규격인 엠지엑스(MGX)를 적용해 랙 단위 GPU·NPU 통합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며, 추론 과정을 서로 다른 반도체에 맡기는 '분리형 추론' 방식으로 프리필(질문 분석)은 엔비디아 GPU가, 디코드(답변 생성)는 리벨리온 NPU가 담당 -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모델 개발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AI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 효율과 비용 절감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협력이며, 정석근 SKT CTO는 한국형 소버린 AI 인프라의 가능성 검증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과기정통부는 소버린 AI·국산 AI 반도체 육성 정책에 맞춰 공공·민간 전반으로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
	□ **노타, AMD 이기종 컴퓨팅 최적화 기술 검증(2026.11.09)** - AI 모델 경량화·최적화 기업 노타가 지난 4일 'AMD 어드밴싱 AI 월드 투어 서울 2026'에서 AMD 라이젠 AI Max+ 395 기반의 이기종 컴퓨팅 최적화 기술 성과를 발표했으며, AMD의 GPU와 NPU에 AI 연산을 나눠 맡겨 AI 답변 속도를 최대 52% 높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기술을 검증 - 자체 테스트에서 큐웬(Qwen3-8B) 모델의 전체 답변 완료 시간은 기존 AMD GPU·NPU 하이브리드 실행 환경보다 28~52% 단축되고 토큰당 에너지 소비는 31%, 토큰당 생성 시간은 41~46% 줄었으며, 질문 분석인 프리필은 NPU가, 답변 생성인 디코드는 GPU가 맡고 두 연산 장치가 동일한 모델 가중치를 공유해 메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리 중복 사용도 축소 - 라마, 큐웬, 파이, 미스트랄 등 추가 테스트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을 11~32% 줄이고 NPU만 사용할 때보다 답변 생성 속도가 2.5~3.8배 빨라졌으며, 노타는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최적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고 이번 검증을 계기로 AI PC와 로보틱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민간기업	□ **LS전선 · LS마린솔루션, BIXPO 전력 기술 전시(2026.11.04)** -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6일까지 열리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6'에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전력·통신 인프라 기술을 선보였으며,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제조부터 해저 시공,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으로 전력 인프라 시장을 공략할 구상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전시 공간에는 해저·지중 HVDC 케이블과 케이블 포설선 모형을 배치하고,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525kV·80℃급 HVDC 해저케이블의 장기 신뢰성 시험을 통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압·대용량 송전 기술을, LS마린솔루션은 해저 지형 분석과 케이블 포설·보호 기술, 해저케이블 점검과 유지보수, 복구 기술을 소개 - AI 데이터센터(AIDC) 전시 공간에서는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버스덕트, 통신 케이블 등 전력·통신 인프라 기술을 선보였으며, LS전선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등 계열사와 협력해 글로벌 AIDC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중으로, 가온전선은 미국 빅테크 AIDC 프로젝트에 버스덕트와 배전케이블을 공급
대학교	□ **조선대, 호남권 대학 연합 AI 창업 해커톤 개최(2026.11.10)** - 조선대학교 앵커사업단이 5~6일 여수 오션힐호텔에서 호남권 대학 연합 '2026 AI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을 개최하고 4개 대학 간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해커톤은 '2026 인공지능(AI) 빌드 업(Build-up) 문화예술 창업캠프'의 마지막 단계로 AI 창업마스터 자격교육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업 현장체험에 이어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조선대와 남부대, 송원대, 전북과학대, 호남대 학생 등 12개 팀 58명이 '일상 속 불편을 창업 아이디어로'와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경연했으며,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교육과 팀빌딩 워크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현장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했고 '다재다능' 팀이 대상을 수상 - 5일에는 남부대·전북과학대·조선대·호남대 4개 대학 앵커사업단이 '호남권 초광역 산학연 협력 지역 성장 엔진 인재양성 협약'을 맺고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조선대 앵커사업단은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와 참가자를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후속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
해외	□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뒤 데이터센터 규제 요구(2026.11.06)**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들고 나섰으며, CNBC에 따르면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전국적인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고, 야사민 안사리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첫날부터 AI 개발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애니 앤드루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 당선인과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승리 연설에서 빅테크나 데이터센터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결정권을 강조했으며, 웰스파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 용량의 27%가 몰린 텍사스주의 지나 이노호사 주지사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모든 데이터센터 승인에 모라토리엄을 내리겠다고 공언 - CNBC 유권자 조사에서 응답자 56%가 AI·데이터센터를 투표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 이 중 65%가 민주당 의회 후보를 찍었으며, 데이터센터 건설 타격 우려에 반도체 ETF가 9% 가까이, 엔비디아가 8%, AMD가 14% 넘게 하락했고, 닛케이는 AI 개발을 둘러싼 온건파·좌파의 입장 차가 당내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